

/ 평창올림픽 붐업 /

도 19개 기관·단체 포함 입장권 39만장 팔아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를 위한 기관·단체 협약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붐업(Boom Up)을 견인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장권을 구입해 주민에게 배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한동안 저조했던 입장권 판매에 숨통이 트였다. 지난 1일 시작된 국내 성화봉송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 경제계는 물론 정부부처와 기관·단체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단체구입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도에 따르면 17일 기준 올림픽 입장권 판매량은 전체 목표

협약 단체 165억원대

내년 초 티켓 판매 급증 전망

일각 “본연의 업무 치질 우려”

(107만 장)의 36.7%(39만 장)를 기록했다.

도는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19개 기관·단체와 올림픽 입장권 구매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신한은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교육청, 대한건설협회 강원지회 등으로 총 165억원에 달한다. 협약을 맺은 일

부 기관·단체는 올해 예산이 없는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내년 초에는 판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체 협약에 의한 입장권 판매는 대부분도가 주도했다. 이처럼 도가 입장권 판매에 적극 나서는데 대해서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온다. 올림픽을 통해 관광·문화 예술 분야 유산 창출, 관람객 숙박 및 교통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할 도가 입장권 판매에 집중하며 본연의 업무는 치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올림픽 입장권 판매는 동계조직위가 책임져야 할 업무다. 이성현기자



◇2017년 강원건축문화제가 17일 강릉 명주예술마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일까지 4일 동안 열린다. 강릉=권태명기자

올림픽 관련 우수 건축전시물 한자리에

강원건축문화제 개막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도내 우수건축 전시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도건축사회(회장:최성두)가 개최하는 ‘2017년 강원건축문화제’가 17일 강릉 명주예술마당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서는 2017 강원건축문화상의 주거 부문 대상 수상한 춘천 (주)유덕건축 조

덕규 대표와 비주거 부문 대상 수상자인 강릉 예인 최이선 대표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축제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 권혁열 도의회 부의장, 심영섭 도의원, 김철래 강릉부시장,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재규기자 koo@kwnews.co.kr